



불과 민속

- 중국 절강성(浙江省)
동부 지역의
전통 소방풍속

글

- 팡지엔춘(龐建春)
홍익대학교
교양외국어학부 교수,
중국민속학 박사

중국 절강성(浙江省) 동부 지역의

현대사회는 비교적 완벽한 소방기구를 통해 화재의 예방과 진압을 하고 있지만, 고대에는 신앙이나 금기 또는 민간조직에 의지하여 이러한 사회적 직능을 수행하였다. 여기서는 중국 절강성(浙江省) 동부 금화(金華)지역의 전통 소방풍속에 대해 몇 가지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전통 소방풍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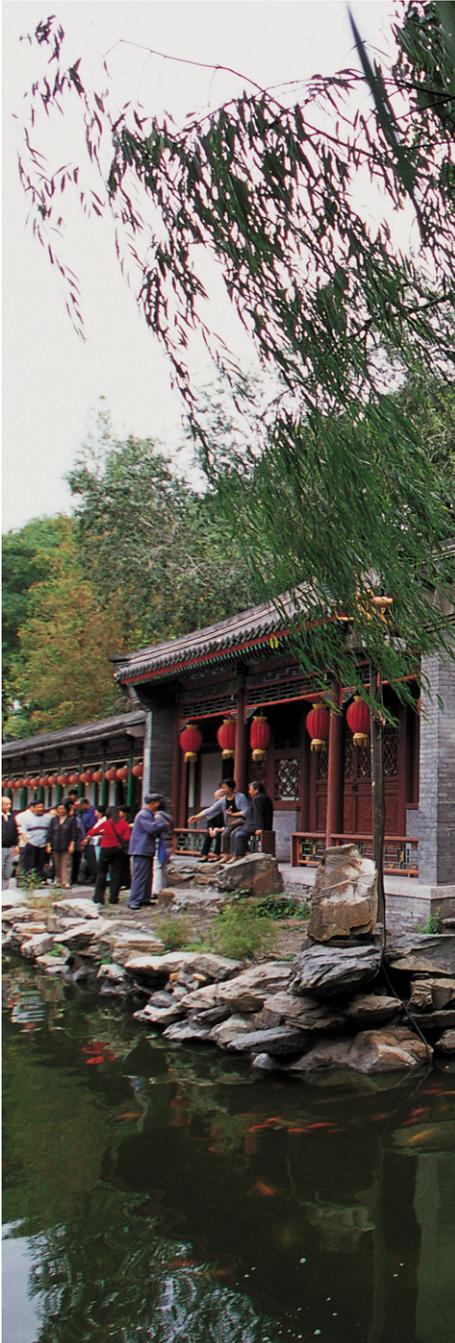
불이 났을 때 진압을 하기도 하지만,

수룡회는 정기적으로 소방연습을 한다.

이것을 ‘수룡절(水龍節)’ 또는 ‘시수룡(試水龍)’ 혹은 ‘분룡(分龍)’이라 한다.

이날은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수룡이 뿜어내는 물을 맞는다.

이렇게 하면 재앙을 면하기 때문에 많이 맞을수록 더욱 길하다고 여긴다.



첫째, 화성산(火星山)을 섬기는 것이다. 금화지역에서 산이 있는 마을은 보통 산 하나를 선정하여 화성산이라 명명한다. 이 산은 이 마을의 명맥(命脈)이 있는 곳이라고 여겨지고, 산에 있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흙이나 돌까지도 모두 신물이기 때문에 침범해선 안 된다. 동양에서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주(山主)가 초목을 무성하게 하고, 산에 있는 돌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한다. 만약 마을 사람 중에 누가 나무를 베고 나서 마을에 화재가 나면 나무를 베는 사람을 불구덩이에 넣는 벌을 내린다.

둘째, 화신(火神)을 쫓아낸다. 금화에서는 마을에서 화재가 난 다음에 얼룩소로 마을길을 갈고, 솔 씻은 물로 길 청소를 한 다음 흰 수탉과 흰 개의 피를 뿌린다. 이렇게 해야 화신이 감히 다시 재앙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 한다.

셋째, 목탁노인(木鐸老人)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청대 말기에서 중화민국 초기 금화의 포강(浦江)지역에서는 관(官)에서 보내 향간의 일반 백성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이르는 노인이 있었다. 이 노인은 손에 목탁을 들고 흔들면서 말을 했기 때문에 목탁노인이라고 불리었다. 이 노인의 말 중에는 “매일매일 화재를 예방하고, 밤마다 도둑을 방지합니다(日日防火燭, 夜夜防偷盜)”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넷째, 수룡회(水龍會)와 분룡(分龍)이라는 풍속이 있다. 수룡회는 금화(金華)와 동양(東陽) 및 포강(浦江)의 농촌에서 있었던 일종의 민간자치 소방조직이다. 중화민국 시기의 지방지(縣志) 기록에 의하면 청대 광서(光緒) 연간에 처음으로 조직되었다. 종족이나 마을을 단위로 연배가 높은 노인을 대표로 모시고, 마을의 청장년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며, 경비는 마을사람들이 모금을 하거나 종족에서 부담을 하기도 하였다. 조직의 형식이나 구성은 비교적 짜임새가 있었다. 고정적인 모임장소인 수룡옥(水龍屋)은 ‘태평용공소(太平龍公

所'라 하였고, 용기(龍旗)라 불리는 회기(會旗)가 있다. 이 깃발은 모임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화재를 진압할 때 길을 인도하는 기능도 있다. 그리고 야간에 활동할 경우를 대비하여 깃대에 등롱(燈籠)을 달았다. 화재가 발생하여 쾩과리 소리를 들으면 수룡회에서 즉시 출동한다. 이것을 '출성(出聖)'이라 한다. 먼저 깃발과 쾩과리가 나가는데, 마치 현대의 화재경보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다음으로는 '수룡(水龍)'이라 불리는 범포수관(帆布水管)이 현장에 도착하여 물을 뿌려 불을 끈다. 여기에는 명확한 분업이 이루어진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깃발과 쾩과리로 인도하



〈사진 1〉 수룡(水龍)



〈사진 2〉 오청수룡회(浙江省 桐鄉 烏青)

(출처: 金華日報)

고, 청장년들은 물을 길고 압축하고 뽑는 일을 하며, 물이 나가는 용머리(龍頭)는 가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잡는다.

불을 끈 다음에는 수룡회와 수룡에 감사하는 두 가지 풍속이 있다. 전자의 경우, 화재가 일어난 마을에서 한다. 만두와 고기를 준비하여 각 마을 수룡회에 감사를 표시하는데, 어떤 곳은 극단을 불러 극을 공연하기도 한다. 포강의 지방극 난탄(亂彈)에는 '화소희(火燒戲)'가 별도로 있다. 수룡에 대한 감사는 신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수룡회의 대표(會首)가 진행한다. 방식은 만두와 고기를 수룡 앞에 진설하고,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켜서 절을 한 다음, 세 번 접은 황지(黃紙)를 태우고, 대표가 술병의 물을 불에 세 번 뿌린다. 이것은 물과 불이 서로 용납하지 않음을 상징한다. 제사가 끝난 다음에는 회원들에게 만두와 고기를 나누어준다.

불이 났을 때 진압을 하기도 하지만, 수룡회는 정기적으로 소방연습을 한다. 이것을 '수룡절(水龍節)' 또는 '시수룡(試水龍)' 혹은 '분룡(分龍)'이라 한다. 이날은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수룡이 뽑어내는 물을 맞는다. 이렇게 하면 재앙을 면하기 때문에 많이 맞을수록 더욱 길하다고 여긴다. 행사가 끝난 후 대표는 '소심화촉(小心火燭)'이라 적혀있는 붉은색 부적을 각 가정마다 나눠준다. 부적 글씨 중 '화(火)'자는 반드시 거꾸로 써야 한다. 부적을 갖고 집에 돌아가서는 부뚜막에 붙이는데, 이렇게 해야 불귀신의 장난을 막는다고 한다. 포강지역에서는 가을과 겨울



전통 소방풍속은 현재는 거의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다.
 수룡회와 같은 자치조직은 조직의 구성과 화재진압 및 화재예방 의식이나
 행동 등에서 볼 때 오늘날 국가에서 설립한 소방기구와
 아주 흡사할 정도로 과학적이다.



〈사진 3〉 중국 절강성 포강(浦江)의 수룡절(水龍節)

(출처 : 中國消防在線)

에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수룡회에서 실시한다. 예를 들면, 각 마을에서는 한 연못을 지정하거나 전적으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담아 놓는다. 이것을 ‘태평수(太平水)’ 혹은 ‘태평지(太平池)’라고 부른다. 그리고 각 가정의 대문에는 노란색 종이에 ‘소심화촉(小心火燭)’이라 쓰여 있는 부적을 붙인다. 매일 저녁 야경을 돌거나 팽과리를 치면서 밤에 물을 길어 물을 담을 수도 있어도 빨감을 날라서는 안 된다고 옆 마을에 주의를 준다.

위에서 언급한 전통 소방풍속은 현재는 거의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다. 수룡회와 같은 자치조직은 조직의 구성과 화재진압 및 화재예방 의식이나 행동 등에서 볼 때 오늘날 국가에서 설립한 소방기구와 아주 흡사할 정도로 과학적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자치조직이 현지의 인력을 충분히 활용했다는 것으로, 현지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익숙하여 화재진압에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 조직은 상부상조의 성격을 띠어 한 마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마을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단일 마을이었을 때의 취약한 재난대응능력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수룡회의 재난방지를 위한 활동이 각 가정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부적 등을 이용하여 직접적이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재해예방 의식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 외에도 화성산을 섬기거나 화신을 쫓아내는 풍속은 신앙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즉 일종의 금기로서 재난예방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는 특수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소방의식을 제고하고 소방능력을 강화하는 데 일정 부분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